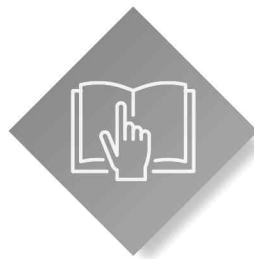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5.02.05



Contents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집행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기술 자금 지원 ... 대학들 기초연구의 부족에 대해 우려(1.30)
- ② EU, 유럽 연구관리자 역량 프레임워크(RM Comp) 발표
- ③ HE CL2 워크프로그램 수정안, 예산 6,200만 유로 삭감(2.3)
- ④ Choose Europe 연구 경력 파일럿 프로젝트(1.30)
- ⑤ 유럽연합의 혁신적인 수운 협력 프로젝트(2.5)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유럽의회조사처(EPRS), 학문의 자유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2.4)
- ② 집행위, 생태 발자국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에 관한 보고서 발간(1.31)
- ③ 유럽 시민의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감소(2.4)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세계 최초의 메탄올 동력 예인선, 해운의 친환경 미래 강조
- ② (성공사례) 인도 내 유럽 혁신의 성장 지원 프로젝트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① 집행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기술 자금 지원 ... 대학들 기초연구의 부족에 대해 우려(1.30)

-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새로운 유럽연합 경쟁력 나침반 (Competitiveness Compass)에 대해 대학과 연구 네트워크가 우려를 표명
 - 지난 1월 29일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략 기술 지원에 중점을 둔 새로운 유럽연합 경쟁력 계획을 발표
 - 폰테어라이엔은 경쟁력 나침반을 발표하면서 “유럽의 혁신 엔진을 재가동”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
 - 산업 정책 담당 집행위원 세주르네는 경쟁력 강화는 “우리가 지출할 모든 유로와 제안할 모든 이니셔티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임
 - 그러나 대학들은 이 전략이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지적했는데, 유럽연구중심대학협회 The Guild의 연구혁신 정책 책임자 Chicot는 전략 기술과 응용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
 - 또한 연구 대학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응용연구와 기술 경쟁력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혁신 가능성에 근본적인 위협을 초래하여 유럽 혁신의 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
 - 유럽의회 Ehler 의원은 상향식 아이디어도 장기적인 경쟁력에 중요한데,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자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까 우려된다고 언급했으며, 집행위가 중앙 집중식 연구혁신 계획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약화한다고 지적
- 유럽연구위원회(ERC)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연구 커뮤니티는 경쟁력 나침반이 ERC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

- 경쟁력 나침반 초안에서는 유럽 주요 기초연구 지원 기관인 유럽연구위원회(ERC)의 독립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암시하여 우려가 제기되었고 수정된 최종 버전에서는 유럽혁신위원회(EIC)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했으나 연구계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음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 사무총장 Deketelaere는 “(집행위원회가) ERC의 향후 활동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아마도 창설 이래 처음일 것”이라고 말함
- **경쟁력 나침반은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EU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쟁력 나침반은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Dragh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쟁력 나침반은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안보 강화의 세 가지 전략 분야에 중점을 두고 향후 5년간 집행위의 업무를 이끌 것
 - 경쟁력 나침반은 향후 EU 연구 자금이 응용연구에서 규모 확대 단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덜 관료적인 접근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
 - 또한 집행위 문서는 새로운 유럽경쟁력기금이 인공지능, 우주, 청정기술, 생명공학 등 전략 기술을 지원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폰테어라이엔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우리가 획기적인 혁신과 기술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언급
 - 집행위는 AI, 반도체, 양자, 첨단소재, 우주 등 주요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있음(AI 팩토리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선정, EU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 발표, 기업의 벤처 캐피탈 접근 개선 등)

| | |
|----|---|
| 출처 | https://sciencebusiness.net/news/research-and-innovation-gap/eu-will-focus-funds-strategic-technologies-boost-competitiveness |
|----|---|

2 EU, 유럽 연구관리자 역량 프레임워크(RM Comp) 발표(1.27)

- 유럽연합은 유럽 연구관리자의 핵심 역량 개발과 경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프레임워크 [RM Comp](#)를 발표
 - 동 프레임워크는 EU 지원 프로젝트인 CARDEA와 RM ROADMAP의 일환으로 개발됨
 - RM Comp는 효과적인 연구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과 기술을 정의하고, 개인과 조직이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RM Comp는 연구관리자에게 자기 평가, 역량 격차 확인, 전문성 개발 가이드를 제공하고 조직이 채용, 교육 프로그램, 성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입안자와 자금 지원 기관은 이를 역량 구축과 협업을 촉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프레임워크는 7가지 역량 영역, 50개 세부 역량, 800개의 학습 성과 등 3가지 핵심 차원으로 구성
 - 7가지 역량 영역은 인지 능력, 기술 숙련도, 이해관계자 참여 등으로 구성
 - 50개 세부 역량은 각 역량 영역에 대한 학습 결과를 정의
 - 800개의 학습 성과는 기초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4단계 숙련도로 구성
 - 이러한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연구관리자는 모든 역량 영역에서 발전하면서도 개인의 강점과 경력 목표에 맞춰 선택적으로 개발 가능
 - RM Comp는 ResearchComp 및 EURAXESS와 같이 연구 경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EU 이니셔티브를 보완하여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
- ※ KERC는 국내 연구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EU RM Comp의 한글 버전을 출시할 예정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rm-comp-new-key-tool-strengthen-research-management-europe-2025-01-27_en

③ HE CL2 워크프로그램 수정안, 예산 6,200만 유로 삭감(2.3)

○ 호라이즌 유럽 클러스터 2 워크프로그램 초안 수정안에서 예산이 6,200만 유로 삭감됨

- 초안의 4억 1,600만 유로 대비 3억 5,400만 유로로 6,200만 유로 감소
- 또한 민주주의 및 문화 연구 주제 중 5개가 삭제되었으며, 다른 공모 주제의 예산도 삭감됨
-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에 관한 혁신적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주제가 삭제됨 :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의 지역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이해 (1,050만 유로),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이해 및 해결(700만 유로), ▲전환기의 정부(700만 유로)
- 유럽 문화유산 및 창의적 산업에 관한 혁신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주제가 삭제됨 : ▲지속 가능한 성장, 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 관광(400만 유로), ▲문화재의 불법 밀매 대응을 위한 혁신 기술(1,500만 유로)
- 일부 공모는 예산 삭감과 함께 2단계 공모 절차로 변경되었는데, 사회 회복력을 위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에 관한 공모는 1,200만 유로에서 1,020만 유로의 예산으로 2단계 공모로 변경됨
- 사회 및 경제 변화에 대한 혁신적 연구에 대해 삭제된 주제는 없으나 EU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이주 및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세대 간 공정성에 대한 연구 예산이 수백만 유로가 삭감됨
- 부모의 경력 경로에 따른 성별 차이 연구는 2단계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되며, 회복력 있는 문화유산을 위한 유럽 파트너십 예산이 7,500만 유로에서 6,000만 유로로 삭감됨

※ 동 초안은 워크프로그램의 최종 버전이 아니며, 올 봄에 2025년 호라이즌 유럽의 모든 계획이 공식 발표되기 전 변경될 가능성이 높음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horizon-papers-eu62-million-cut-democracy-and-culture-research>

4 Choose Europe 연구 경력 파일럿 프로젝트(1.30)

- 호라이즌 유럽의 마리퀴리(MSCA) 워크프로그램 초안에 따르면 유럽의 두뇌 유출과 연구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Choose Europe의 시범 프로그램이 2025년 진행될 예정
 - Choose Europe 이니셔티브는 Heitor가 FP10에 대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이며, 박사후과정 또는 젊은 연구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초안 문서에 따르면 집행위는 2025년에 2,250만 유로의 예산으로 Choose Europe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시할 예정
 - Heitor의 아이디어는 학계에서 열렬한 호응을 얻었으며 CESAER 대학 협회는 아이디어의 실행을 촉구
- '25년 MSCA 예산은 '24년 대비 약간 증가한 12억 5,500만 유로로 책정
 - 이는 이전에 예상된 9억 3,528만 유로로의 삭감을 피한 것
 - MSCA 박사 네트워크(Doctoral Network) 예산은 약간 감소하여 5억 9,800만 유로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됨
 - 포닥 펠로우십(Postdoctoral Fellowship) 예산은 '25년 4억 400만 유로로 감소할 것
 - 직원교환(Staff Exchange) 프로그램은 올해 약 9,8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될 것
 - 또한 공동 자금을 지원하는 Cofund 프로그램에는 Choose Europe 파일럿에 할당된 2,250만 유로를 포함하여 1억 2,800만 유로가 지원될 것
 - '25년 추가 공모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이주한 연구자들을 위한 펠로우십에 1,000만 유로가 배정될 예정

| 프로그램 | MSCA | Doctoral Network | Postdoctoral Fellowship | Staff Exchange | Cofund |
|----------------|-------|------------------|-------------------------|----------------|--------|
| 2025 예산 (백만유로) | 1,255 | 598 | 404 | 98 | 128 |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careers/choose-europe-research-careers-pilot-set-begin-2025>

⑤ 유럽연합의 혁신적인 수운 협력 프로젝트(2.5)

- 유럽연합은 청정연료, 재생가능에너지, 탄소포집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수운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호라이즌 2020과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기금을 통해 이를 대규모로 확장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에 기여

① SUSTAINSEA

- (목적) 해상 운송의 CO2 배출 감소를 위한 풍력 보조 추진 기술 개발
- (성과) Bound 4 Blue 스타트업이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대형 화물선 5척에 적용했으며, 이 이니셔티브는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와 최대 91%의 배기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

② SOL

- (목적) 바이오 연료로 사용 가능한 원유 설탕 오일 개발 및 상용화
- (성과) 해상 선박에서 사용 가능한 재생 연료로 기존 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 80% 이상 감소

③ GREENMOTRIL

- (목적) 스페인 모트릴 항구를 유럽 최초의 재생 에너지로 구동되는 오프그리드 항만으로 전환
- (성과) 빅데이터 플랫폼 및 AI 분석 마켓플레이스 개발, 데이터 관리 플랫폼 연구, 디지털 복제 기술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에너지 관리 지원

④ IRIS

- (목적) 대규모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수소 및 메탄올 제품 개발
- (성과) 효율적인 CO2 포집 기술 및 CCUS(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체인 구축, CO2 저장 네트워크와 대체 연료 안전성 입증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collaborative-ri-scaled-impact-waterborne-building-eu-research-excellence-2025-02-05_en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1 유럽의회조사처(EPRS), 학문의 자유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2.4)

- 유럽의회조사처는 학문의 자유 모니터링 보고서 2024년 판을 발간
 - 보고서의 첫 번째 연구인 ‘유럽연합의 실질적 학문의 자유 현황 분석’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전반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수치를 조사
 - 2024년 학문의 자유 지수(Academic Freedom Index)에 따르면 EU 전반적으로 학문의 자유가 2023년 대비 약간 감소했으며, 헝가리,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5개국에서 2013~2023년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해관계자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질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10개 회원국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주요 위협과 그 영향을 분석. 정치적 간섭, 기관 내부 검열, 시민사회 공격, 민간 부문 자금 의존, 국제적 긴장으로 인한 보안 제한 등이 주요 위협으로 지목됨
 - 두 번째 연구인 ‘정당한 학문의 자유 보호 개요’에서는 모든 회원국의 학문의 자유 보호에 관한 헌법 조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일부 회원국의 헌법상 학문의 자유 보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는 학문의 자유가 ‘과학의 자유’, ‘과학 연구의 자유’와 같은 간접적 개념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그리스만이 헌법에 ‘학문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포함
 - 보고서는 학문의 자유를 EU 기본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법적 틀을 강화하며, 관련 데이터 기반을 확장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STU\(2025\)765776](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PRS_STU(2025)765776)

2 집행위, 생태 발자국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에 관한 보고서 발간(1.31)

- 새로운 집행위원회 [보고서](#)는 생태 발자국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
 - 이 데이터베이스는 생애주기 전 과정 평가 연구를 위한 배경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유럽 표준인 생태 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 방식을 기반으로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됨
 - 동 연구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생태 발자국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개괄적으로 설명함
 -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데이터셋의 생성, 검증 및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IT 아키텍처 및 IT 도구를 포함한 일반적인 개념을 포함
 - 집행위는 생태 발자국 방식이 정책 수단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됨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및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frame-work-accessible-environmental-footprint-database-simply-life-cycle-assessments-2025-01-31_en

③ 유럽 시민의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감소(2.4)

- 최근 Eurobarometer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 시민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인식은 여전히 높지만 일부 감소 추세가 나타남
 -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과학과 기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유럽 시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83%가 과학과 기술의 전반적인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으며 이는 '21년 대비 3%P (퍼센트포인트) 감소한 수치
 -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은 14%로 (3%P 증가)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태도가 약간 덜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말로 요약함
- 국가별 긍정적 인식은 스웨덴이 가장 높았고, 특정 기술 중 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음
 -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스웨덴이 94%로 가장 높았고 루마니아가 65%로 가장 낮았음
 - EU 내에서는 슬로바키아와 이탈리아에서만 '21년 이후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으며, 라트비아에서 11%P로 가장 크게 감소
 - 특정 기술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7%가 재생 에너지 기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55%('21년 대비 6%P 하락)가 같은 답변을 함
- 설문조사에서 신뢰와 이해 부족, 평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응답자의 절반은 과학자들이 산업계 자금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
 - 절반 이상인 58%는 과학적 발전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답했으나 53%는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함

- 성평등이 과학 결과를 개선할 것이라는 응답은 63%로 '21년 대비 2%p 감소
- 또한 과학과 기술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77%(1%p 감소), 정부가 새로운 기술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도록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72%(변화 없음)로 기록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시민들의 긍정적 태도가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하며 과학 기술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개방성, 투명성, 청렴성을 증진하며 시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politics/2025/2/Fewer-Europeans-seeing-science-as-positive--survey-finds.html>

3. EU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세계 최초의 메탄올 동력 예인선, 해운의 친환경 미래 강조

- EU 지원 FASTWATER 프로젝트는 선박을 재생 가능 액체 연료로 전환함으로써 운송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보여주며 EU의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
 - 해운업은 매년 1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인간이 유발하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를 차지
 - 언뜻 보기에 Tug 21은 벨기에의 앤트워프-브뤼헤 항구에서 다른 작업 예인선과 구별되는 특징이 없으며, 밝은 빨간색과 흰색 조타실이 둥근 검은색 선체 위에 놓여 있어 바쁜 항구에서 선박을 앞뒤로 안내하는 많은 예인선들 사이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으나, 갑판 아래를 들여다 보면 해운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음
 - 유럽 대외 무역의 75% 이상과 EU 회원국 간의 무역의 35%가 바다, 강, 운하 또는 호수를 통해 운송되는 등 해상 운송은 유럽 경제에 필수적임
 - 이로 인해 상당한 탄소 발자국이 생기며, 이 부문은 유럽의 모든 운송 관련 온실 가스 배출량의 13.5%를 차지, 해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유럽이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이 되려면 수상 운송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이러한 노력이 현대적이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운송 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함
 - 벨기에 헨트 대학교와 스웨덴 룬드 대학교의 내연 기관 교수이자 FASTWATER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Sebastian Verhelst는 "우리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야 하며, 모두가 이에 동의한다. 하지만 운송 전반을 살펴보면 전기화는 일부 틈새 시장에서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함

- 전 세계 해운은 경유와 중유, 디젤, 액화천연가스(LNG)가 포함된 매년 약 2억 톤의 연료를 소비하고 있으며,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풍부한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제의 규모는 엄청남
-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하다. 확장이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이 될 것이다." (Verhelst)
- **풍력과 태양광은 저렴하고 풍부하며, 생성된 전기는 공기 중의 물과 CO2를 메탄올 연료로 결합하여 전기 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 잠재적인 친환경 연료로 알려진 수소와 달리 메탄올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므로 고압 탱크나 극저온 저장 공간이 없는 소형 선박에 적합함
 - 또한 메탄올은 일반적인 산업용 원료이므로 많은 항구 시설에는 이미 연료를 이동하고 저장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있음
 - 메탄올로 구동되는 선박은 거의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 기술은 이전에는 대형 원양 선박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음
 - "유럽 항구와 유럽 해안에는 수천 척의 소형 선박이 있지만, 우리는 이들을 위한 해결책이 없었고, 다른 엔진 기술이 필요했다"(Verhelst).
 - FASTWATER 프로젝트는 소형 선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료로서 메탄올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작됨
- **FASTWATER 프로젝트는 Horizon 프로젝트 LeanShips와 HyMethShip의 이전 작업을 바탕으로 선박 엔진을 메탄올로 작동하도록 전환하는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둠**
 - 그 결과, 세계 최초의 메탄올 구동 예인선인 Tug 21(Methatug라고도 함)이 탄생
 - 기존 디젤을 파일럿 연료로 사용하고 최대 80%의 메탄올로 작동하는 이중 연료 엔진으로 구동되는 30m 길이의 선박은 50톤을 견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며, 선체에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12,000리터의 메탄올을 저장할 수 있음

- 재생 가능한 메탄올을 사용하여 재설계된 선박은 이전보다 온실 가스 배출량이 최대 80% 적고, 미립자 오염도 80% 적어 환경과 인근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음
 - 또한, 메탄올의 화학적 성질은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
- FASTWATER 프로젝트는 Methatug외에도 스웨덴의 파일럿 보트와 그리스의 해안 경비대 선박을 개조했으며, 독일에서 메탄올로 구동되는 리버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전환 개념을 개발
- 이러한 선박의 성능을 신중하게 분석한 후, Verhelst와 그의 동료들은 상용화를 목표로 메탄올 솔루션을 더욱 개발할 계획
 - "이제 우리의 희망과 기대는 더 작은 선박들도 메탄올로 운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Verhelst)
 -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의 룬드 대학교에서 주관했으며, 안트워프-브뤼헤 항구, 겐트 대학교, 스웨덴 해양청,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웨덴, 영국의 전문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음
 - 2030년까지 내륙 수로와 해상 운송이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부문의 탄소 발자국은 새로운 기술과 규제가 없는 가운데 계속 증가하게 될 것
 - FASTWATER와 같은 Horizon 프로젝트는 개별 항구의 선단을 친환경화 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이라는 EU 목표를 향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도 중요
 - 또한, 이는 해운 산업을 친환경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테스트 함으로써 환경, 기업,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

FASTWATER 프로젝트

- 기간 : 2020.06.01.~2024.05.31.
- 예산 : 약 6,357,962.50 유로 (EU 4,999,217.51 유로 지원)
- 주관 : LUNDS UNIVERSITET (스웨덴)

LeanShips 프로젝트

- 기간 : 2015.05.01.~2019.04.30.
- 예산 : 약 21,550,240.57 유로 (EU 15,752,357.97 유로 지원)
- 주관 : SCHEEPSWERF DAMEN GORINCHEM BV (네덜란드)

HyMethShip 프로젝트

- 기간 : 2018.07.01.~2021.12.31.
- 예산 : 약 9,288,310.00 유로 (EU 8,438,110.00 유로 지원)
- 주관 : LEC GMBH (오스트리아)
-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worlds-first-methanol-powered-tugboat-highlights-greener-future-shipping>

2 [성공사례] 인도 내 유럽 혁신의 성장 지원 프로젝트

- EU가 지원하는 EU-인도 Inno Center는 유럽의 최첨단 기술 기업을 인도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과 연결하기 위해 출범
 - 이 이니셔티브는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 스타트업의 길을 매끄럽게 하며 EU-인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됨
 - 이는 아이디어가 꽃을 피우고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가능
 - 유럽은 잘 발달된 기술과 혁신 역량을 자랑하지만 다른 국가로 솔루션을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다양한 시장 잠재력을 갖춘 인도는 확장을 모색하는 유럽 스타트업들에게 이상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규제 차이, 친숙하지 않은 시장, 문화적 차이와 같은 인식된 장벽으로 인해 많은 인도는 유럽 기업들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왔음
 - EU-인도 InnoCenter는 인도 시장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중소 규모 유럽 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여 잠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됨
 - Civitta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이자 파트너인 Jurga Mečinskienė는 "EU-India InnoCenter는 인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를 개척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 시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
- 동 프로젝트는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의 유럽 스타트업들이 인도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역동적인 비즈니스 허브를 만들
 - 유럽의 4개와 인도의 2개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 컨소시엄의 지원을 받아 비즈니스 컨설팅 및 투자 자문과, 지식 교환 및 파트너십 구축을 제공

- 이 프로젝트는 각 신규 기업에 4가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인도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확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와 지식을 제공, 여기에는 시장 발굴, 사업 확장, 제품 검증 및 시장 진입 전략들이 포함됨
- EU-India InnoCenter의 성공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유럽과 인도 이해 관계자 간의 양방향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임
- Mečinskienė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기업들이 인도와 처음으로 직접 만나 현장 경험을 쌓는 탐사 및 검증 단계였음
- "이를 통해 인도 시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과제와 기회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준비와 연결을 통해 상당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다." (Mečinskienė)
- 이 프로젝트는 의료, 에너지 전환, 물류 및 지속 가능성과 같은 핵심 분야의 발전을 지원, 주목할 만한 예로 슬로베니아의 천연 식물 비료인 Foliomax가 있음
 -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인구 밀도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에서, 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자원 소비를 줄이며 영양 밀도를 개선하는 이 제품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
- 3년 동안 100개 이상의 기업이 EU-India InnoCenter의 지원을 받았으며, 63개 기업이 시장 검증 지원을 받았고, 13개 기업이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현지 입지를 구축
 - 이러한 기업들은 먼저 고객을 확보하고 유통 파트너를 설립하고 파일럿 시험을 수행하였음
 -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유럽 혁신 시장으로서 인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InnoCenter는 협력과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인도를 비즈니스 목적지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기여했으며,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통해 유럽의 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와 인도의 4억 5천만 명의 잠재 고객들에게 다가감

- 동 프로젝트는 또한, 자금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자립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듦
 - 여기에는 유럽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회사인 Start2 Group이 포함
 - "센터는 계속 운영될 것이며 들어오는 요청에 따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나 정부 기관 파트너들과 함께 센터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목표 이니셔티브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Mečinskienė)
- 유럽과 인도 기업 간에 1,360개 이상의 연계가 구축됨에 따라 EU-India InnoCenter는 유럽과 인도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미래 이니셔티브를 위한 성공적인 템플릿을 제공함
 - 또한, 이 프로젝트는 기술 및 문화적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두 지역 모두에 상호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세계가 점점 더 상호 연결됨에 따라 EU-인도 InnoCenter와 같은 허브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문화 교류를 장려하며,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임
 - 이 프로젝트의 가장 지속적인 유산은 바로 검증된 모델을 대륙 간 혁신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할 수 있음

EU-India InnoCenter 프로젝트

- 기간 : 2021.01.01.~2023.12.31.
- 예산 : 약 2,994,250.00 유로 (EU 100% 지원)
- 주관 : UAB CIVITTA (리투아니아)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supporting-growth-european-innovation-india>